

#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● “청소년 대상 만화·잡지 문제점 많다”-YMCA 등 실태조사 발표 / 폭력·잔인·범죄·물질만능 조장 / 광고·연예기사 절반이상 차지 (서울경제신문 11월26일 孫東榮기자)

● 창작동화집 인기 ‘껍충’-명랑소설·일반동화·추리물 등 출판 활기 / 세계명작동화 번역 일변도 탈피 / 구김살없는 모습 재미있게 그려 (일간스포츠 11월26일 陸紅榮기자)

● 명상서적 열풍-80년대 출판계 새 흐름...배경과 현황 / 정치 무관심·풍요 반작용 표출 / “허황된 얘기” “심오한 세계” 찬반 엇갈려 / 「성자가 된 청소년」 등 여성층 중심 폭발적 반응 (조선일보 11월26일 崔球植기자)

● 민주화바람 타고 이념·해금도서 붐물-李斗暎 출판협 사무국장 / 출판량 늘었으나 학습참고서가 절반 / 세계저작권조약 가입으로 체질변화 재촉 (중앙일보 11월27일)

● 외국만화 저작권계약 첫 번역 출간-일본 요코야마작 「만화삼국지」 이달 선보여 / 덩핑·해적출판물 범람 속 시도 주목 / “국내 작품도 좋은 것 많은데...” 비판도 / 저질 오명 벗고 저변 넓힐 계기로 (조선일보 11월28일 崔球植기자)

● 연구저작물 크게 늘고 경쟁도 치열-제3회 한국출판문화상 접수 마감 / 문학 비롯 346종 출판 / 종교서적 급증 두드러져 (한국일보 11월28일 徐華淑기자)

● “우리 책들 해외서 관심 많다”-일본·구미 등서 큰 화제 / 「또 하나의 만엽집」 「하얀 전쟁」 등은 베스트셀러 / 작가가 직접 외국어로 쓰거나 번역 / 「한국사신문」 「김치」 등 한국문화책자도 잘 팔려 (세계일보 11월28일 申敏亨기자)

● 선물부 도서판매 다시 성행 / 각종 전집...책값의 2~3배 선물제공 / 금장시계에 최고급 수입카메라 까지 / 출판계, 풍토 흐리는 덩핑행위 근절 시급 (서울경제신문 11월2

8일 姜升遠기자)

● 「창작과 비평」 주간 구속 파문 ‘이적표현물’ 적용 논란 / 황석영씨 북한기행 「신동아」도 일부 게재 (한겨레신문 11월29일 조선희기자)

● 빨치산 기록 2권 잇따라 나와 / 「젊은 혁명가의 초상」, 인민군장교 ‘한국전쟁’ 총체 증언 / 「실록 정순덕」, ‘지리산 여장군’ 구술로 3권 마무리 (한겨레신문 11월29일 신연숙기자)

● “도종환씨의 두번째 시집도 잘 팔린다”-「지금 비록 너희를 떠나지만」 두달만에 2만부 / 분노의 표출보다 아내의 심성 보여줘 (중앙경제신문 11월29일)

● 출판물 103종 ‘좌경’ 규정 / 대검단속 지시 / 저자·출판사대표 구속 수사 (한겨레신문 11월30일)

● 베스트셀러 문학작품 영상화 러시-申庚林의 「남한강」, 李泰의 「남부군」 등 10여편 / 주제 다양·예술적 완성도 높아 인기몰이 / 일부선 “소설보다 나은 시나리오 드물다” 회의적 (국민일보 11월 30일 尹常吉기자)

● 80년대를 빛낸 과학서적-「출판저널」 선정 ‘10년 베스트셀러’ 무엇이 담겼나 / 과학교양물 현대인 필독서로 새롭게 인식 / 재미있는 만화 등 이용 ‘대중화’ 노력 기울일 때 (스포츠서울 11월30일 서병기기자)

● “가정학습지시장 뜨겁다”-대형출판사 속속 진출 / 年 3천억 규모... 80여사 ‘접전’ / 태입 끼워주기 등 판촉 다양 (중앙경제신문 11월30일)

● 컴퓨터 출판시대 개막-동아출판사 CAPS 방식 제작 성공 / 기획→인쇄 54단계서 8단계로 단축 / 출판사는 기획만...전문화 큰 디딤돌 (한겨레신문 12월1일 신연숙기자)

● 광주에 첫 지역출판협의기구 발족 (한겨레신문 12월1일)

● “시집 「홀로서기」 가장 많이 팔렸다”-80년대 도서판매부수 교보문고·종로서적 집계 / 「소설 손자방법」 「나의 라임오렌지나무」 뒤이어 (중앙경제신문 12월1일 金龍善기자)

● “추리문고, 당신의 상상력 키워준다” / 「Q미스터리」, 70년대 「동서추리문고」 후 최대 300권 규모 / 고전·미소개작품 반반씩...매달 2~4권 출간 (일간스포츠 12월1일 陸紅榮기자)

● 컴퓨터출판 확산 추세 / PC입력 곧 조판 제작단축 / 편집·교정·자료 대량집적 등 한결 용이 / 畫像·음성처리까지...SW개발은 과제 (한국경제신문 12월1일 李汀桓기자)

● 초겨울 서점가 무명작가들 돌풍-金潤姬 「나 홀로 되어 남으리」 소설 1위 (경향신문 12월1일 安健赫기자)

● 金秀行교수 「자본론」 번역본 논쟁 / 전문번역가 黃台淵씨 “북한본 베꼈다” 주장 / 김교수 “전혀 공감할 수 없는 사실무근” 일축 (국민일보 12월1일 李太熙기자)

● 다시 세인 주목받는 노동자시인 박노해-문제의 글 잇달아 발표 / 김우중회장의 수필집 통박 / 詩 「존경하는 김주석에게」 등 13편도 내놔 (중앙경제신문 12월2일 朴海鉉기자)

● “판치는 저질소설...청소년 정서 해친다”-서울 YMCA, 하이틴로맨스物 내용 분석 / 그릇된 애정관·육감적 표현 많아 / 향락장면 자주 등장...과소비 부추겨 (서울신문 12월 2일 柳相德기자)

● “청소년대상 ‘로맨스소설’ 선정적 묘사 너무 심하다”-서울 YMCA 조사 / 제목 내용 등 말초적 표현 많아 / 그릇된 가치관 조장 우려 (스포츠서울 12월2일 이형미기자)

● 흥범도 장군 전기소설 완결기로-在蘇 김세일씨 서울서 출간 / 蘇 활동부분 그려...사진 2장도 국내 첫 공개 (한국일보 12월2일 徐華淑기자)

● 古書, 구절마다 선인 지혜 가득 / 전국에 전문서점 16곳...학자, 수집가들이 단골고객 (스포츠서울 12월4일 류창하기자)

● 출판계·서점가, 도서상품권발행 부활추구-70년초부터 시행하다 과소비 규제로 묶여 폐지 / “독서인구 늘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” / 일부선 독자서명운동 등 구체적 움직임 (중앙일보 12월4일 鄭橋濬기자)

● “금단의 벽 무너졌다”-공산권 원전 번역 / 중국·소련·동독 책 출판 러시 / 북한서적 제동에 방향전환 활로 모색 (동아일보 12월 5일 梁泳彩 기자)

● 전경련 ‘자유경제 출판상’ 제정 / 쏟아지는 체제비판서적 대응 / 우수경제도서 사들여 배포도 / “출판문화에 영향력 강화” 비판도 (중앙경제신문 12월5일 朴海鉉기자)

● 체코반체제작가 밀란 쿤데라

소설 서점가에 조용한 선풍-「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」 4만여부나 팔려 / 성과 정치 함께 다뤄 재미 만점 / 문체독특 문학지망생에 인기 (동아일보 12월5일 金承旭기자)

● 체코명작가 쿤데라 소설 각광 / 동독 개혁바람 발맞춰 잇달아 소개 / 개인의 자유·성을 형이상학적 표현 (중앙경제신문 12월6일 朴海鉉기자)

● 자유바람...신규등록만 860종-되돌아본 89년 잡지계 / 자진폐간·등록 후 미발행 속출 / 국제잡지협회 이사국 선출 성과 (매일경제신문 12월6일 李奉濬기자)

● ‘올해의 책’ 7권 선정-신문·방송·통신 출판담당기자들 / “책 물량 급증으로 어려움”...예년보다 2권 더 뽑아 / 「해방전후사의 인식」 「성서의 세계」 등 각 출판사 역저망라 (세계일보 12월6일 申敏亨기자)

● 이것이 ‘올해의 책’-출판기자 7권 선정 (일간스포츠 12월6일 류창하기자)

● 「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」 가장 많이 팔렸다-교보문고, 올해 베스트셀러 50위 집계 / 소설·시 퇴조...인문·사회과학 6종 진입 ‘이채’ (한국경제신문 12월6일 李汀桓기자)

● 가상소설, 문단 새 조류로 떠올라 / 이문열·북거일·박희섭 두각 / 공상과학과 달리 현실의 轉倒·과장기법 / “사회에 대한 새 시각·비평 제공” 긍정평가 (내외경제신문 12월6일 南眞祐기자)

● “북한자료센터 열람실이 썰렁하다”-공산권자료 6만 5천점 비치 / 하루에 고작 20~30명 이용 / “북사금지 등 폐쇄적 운영” 지적도 (한국일보 12월6일)

● 인문·사회과학 성장 ‘팔목’-올해의 베스트셀러 50選 / 1위 김우중씨의 「세계는 넓고...」 / 수필 강세... 인기작가 이문열씨 (한국일보 12월6일 徐華淑기자)

● 전자출판시대 도래 / 동아일보사, 최첨단 통합시스템 가동 / 중소출판사까지 앞다퉈 컴퓨터 도입 / 저자가 퍼스컴에 입력하는 ‘디스크원고’도 보편화 (세계일보 12월7일 申敏亨기자)

● 통일관계서적 붐물 / 보수·반공서 친공·중립화까지 제기 / “대결·갈등 초래” “통일여건 조성” 논란 (세계일보 12월7일 申敏亨기자)

● 청소년 음란서적 피해 심각-서

울 YMCA 중·고생 대상 조사 / “의설잡지·만화 등 본 적 있다” 82% (국민일보 12월7일)

● 올해의 책, 「해방전후사의 인식」 등 7종 / 「한국 漢詩」 「성서의 세계」도 포함 (국민일보 12월7일)

● 소설 「흥범도」도 겹치기 출판 / 지은이·신문사 각각 계약...권리주장 맞서 / 출판물 시비 올해 10여건 “상업주의 병폐” (한겨레신문 12월7일 신연숙기자)

● ISBN·POS 컴퓨터 도서관리제 시급 / 국제표준번호제, 국가위원회 설치 고유번호 받아 국제화 / 판매시점관리제, 매장서 판매정보 기록...유통 원활 촉진 (한겨레신문 12월8일 신연숙기자)

● “출판의 자유 막는 관계법 개정”-출판학술세미나서 참석자들 주장 / 검열·판금수단 납본제 폐지 / ‘윤리위원회’ 통해 자율규제 유도 (서울경제신문 12월8일 孫東榮기자)

● “읽히는 책보다 읽어야 되는 책 퍼내자”-출판문화발전과 과제 심포지엄 / 독자 취향에 순응·영합하는 자세서 탈피 / TV 매체 고려... 시각적 디자인 개발을 (서울신문 12월8일 李賢珠기자)

● “역사개설서, 미술사 오류 많다”-유홍준씨, 학술대회서 주장 / 일부 시대설명 누락...순서 바뀌기도 / 문화사적 접근 배제, 편협·몰이해적 (한국경제신문 12월8일 李汀桓기자)

● “때론 詩 1편 쓰는데 몇년씩 고뇌”-4번째 시집 「시간의 얼굴」 퍼낸 이해인 수녀 / 修道엔 번거로운 ‘베스트셀러’...두려움 앞서 (경향신문 12월8일 安健赫기자)

● “무정부주의 다른 출판물 많이 나온다”-금년 들어 「아나키즘」 「반역아 미하일 바쿠닌」 등 4권 번역출간 / 권력에 혐오 ‘개인의 절대자유’ 추구 (중앙일보 12월8일 李京哲기자)